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지원기관 공식 명칭 ‘청년미래센터’로 선정

-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지원기관 명칭 공모 결과, 우수작 총 4건 최종 선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8월 27일(화)부터 두달에 걸쳐 진행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지원기관 명칭 공모」 결과, ‘청년미래센터’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과 일반 국민에게 위기청년 전담 지원사업 및 센터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실시되었다. 8월 27일(화)부터 9월 10일(화)까지 2주간의 공모기간 동안 총 1,169건이 접수되었다. 1차 사전심사(전문가 및 복지부 청년인턴 참여)를 통해 1,169건의 출품작 중 8점이 선정되었고, 8개 작품에 대한 2차 대국민 온라인 투표와 3차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선정이 이루어졌다.

2차 대국민 온라인 투표는 9월 30일(월)부터 10월 13일(일)까지 2주간 진행되었으며, 총 1,716명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투표결과, ‘청년온(溫)센터’, ‘청년미래센터’, ‘디딤ON 청년센터’, ‘청년 헤아리움센터’가 상위 4개로 선정되었다.

< 온라인 투표 결과(1,716명 참여) >

400 ~ 300표			300 ~ 200 표
청년온(溫)(센터)	청년미래센터	디딤ON 청년센터	청년 헤아리움(센터)
150 ~ 100표		100 ~ 50표	
청년메이트(센터)	청년 히어로(hear勞) 센터	나는청년센터	청년희망 외딴센터

최종 심의는 홍보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 온라인 투표 결과를 기반으로 대중성, 독창성, 적합성 평가지표를 종합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1위작으로는 힘든 상황에 처한 위기청년에게 밝은 미래를 제시하는 공간이라는 의미의 ‘청년미래센터’가 최종 선정되었다. 청년미래센터를 포함한 총 4개 우수작에 대해서는 11월 2주 시상과 부상을 전달할 예정이며, 1위로 선정된 청년미래센터는 즉시 공식명칭으로 사용된다.

< 공모전 최종 결과 >

연번	출품작	의미	시상
1	청년미래센터	가족돌봄청년과 고립된 청년들에게 밝은 미래를 제시하는 공간	우수
2	청년온(溫)	청년들이 마음 편히(온) 찾아와 휴식을 취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	장려
3	디딤온(On)청년센터	청년들에게 안정적 기반(디딤)을 제공하고 잠재력을 발휘(ON)할 수 있도록 돕는 센터	장려
4	청년헤아리움	어려운 청년을 발굴하여 헤아려가며 자립·복귀의 '움'을 틔우도록 지원하는 기관(ium, 공간)	장려

지난 8월 14일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시·도에 개소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지원기관은 오늘부터 ‘청년미래센터’로 부를 수 있다.

* 청년미래센터 운영기관 : (인천 미추홀구) 인천사회서비스원, (울산 중구)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전북 전주시) 전북사회서비스원, (충북 청주시) 충북기업진흥원

가족돌봄청년은 청년미래센터 소속 전담인력으로부터 밀착 사례관리 지원을 받게 된다. 전담인력과 상담하여 가족돌봄으로 미뤄왔던 본인의 성장을 위한 자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와 함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일상돌봄서비스, 심리지원 등이 기본 지원된다.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 거주하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픈 가족을 돌보는데 많은 시간을 쏟고 있어 힘들어하는 13~34세 청(소)년들은 청년미래센터로 주간시간 동안 언제든지 방문하거나, 위기청년 전담지원 사이트인 청년온(www.mohw2030.co.kr)에 들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만 하면 원스톱 상담 도움과 함께 자기돌봄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 시군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 확인(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00% 기준 이하) :
2인 기준 368.3만 원 이하, 3인 기준 475.5만 원 이하

도움을 요청한 고립은둔청년에게는 초기상담을 거쳐 맞춤형 일상회복 프로그램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가족관계 회복, 사회활동 참여 등 고립정도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1:1 또는 1:多 참여 형태로 운영되며, 공동생활 프로그램이 특화 프로그램으로 제공된다.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미래센터에 대한 관심과 협조가 점차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라면서,

“위기청년들은 힘들더라도 마땅히 내게 맞는 도움을 줄 곳을 못 찾는 경우가 많다. ‘청년미래센터’라는 이름을 검색하면 도움받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특히 가족돌봄청년들은 가족돌봄에 쫓겨 본인들이 자기돌봄비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학교나 주변에서 꼭 자기돌봄비 등 지원신청을 적극 안내해주길 부탁드린다” 라고 당부하였다.

- <붙임> 1. 공모전 결과 포스터
2.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지원 사업 개요

담당 부서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청년정책팀	책임자	팀 장	장영진 (044-202-3701)
		담당자	사무관	고윤권 (044-202-3706) 정의서 (044-202-3702)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지원기관 명칭 공모전 수상자 발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지원기관 명칭 공모전에
좋은 작품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수상자를 발표합니다.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지원기관 명칭 공모전 수상자

수상내용	공모작	성명	휴대폰 뒷자리
우수상 (상금 50만원)	청년미래센터	박*우	8906
장려상 (상금 25만원)	청년온(溫)	고*락	2014
	디딤온(On) 청년센터	김*심	6593
	청년혜아리움	장*미	0877

※ 실제 전담 지원기관 명칭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가공 및 변형 등 과정을 거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공모전 담당자 이메일 문의 (mohw2030@korea.kr)



붙임2

가족돌봄 · 고립은둔청년 전담 지원 사업 개요

- (개요) 전통적 복지 전달체계인 읍면동 창구와 별도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을 전담하는 발굴·지원체계 구축('24~'25, 2년간 시범사업)

* (가족돌봄청(소)년) 전국 **약 10만명**(13~34세) 추정('22년)

* (고립은둔청년) 거둬들인 실패로 고립은둔 택하는 청년(19~39세) **최대 54만명** 추정('23년),

- 4개 광역시도(인천, 울산, 전북, 충북) 위기청년 원스톱 전담창구 통한 책임관리 체계 마련, 중앙차원 체계적 발굴 및 밀착 사례관리

* 민간수행기관 지정('24.6월) : (인천, 울산, 전북) 각 시도사서원 / (충북) 충북기업진흥원



* 행정지원으로 청년인턴 센터당 6명 추가 파견(복지부에서 채용, 총 24명)

- ('24년 예산) 국비 3,403백만원(70%) / 자치단체보조(30%)
- (전담인력) 총 56명(4개소 / 개소당 14명: 가족돌봄 6명, 고립은둔 8명)

□ 주요 지원내용

- (가족돌봄청(소)년) (발굴) 지역 내 중고교·병원과 상시협력체계 구축 (아픈가족) 의료·돌봄서비스 신청대행·연계 (청년) 연 200만원 자기돌봄비*

* 전담인력이 현금지원과 연계해 자기발전계획 함께 작성, 아픈 가족을 위한 복지·돌봄서비스 외에도 교육장학금·금융·주거·법률·일자리 등 필요한 서비스 연계

- (자기돌봄비) 밀착사례관리 대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선정(960명), 우리카드 先포인트 지급(자기발전계획에 따른 지급여부 월별 확인)

* 자기돌봄비 지급 관리체계 구축 관련 우리카드社와 업무협약 체결(5.2)

- (고립은둔청년) (온라인 자가진단) 초기상담 후 고립정도에 적합한 프로그램 제공*

* 자조모임, 심리상담 및 가족관계 회복, 공동생활, 소통기술 습득, 간단한 일경험 등